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복상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덫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선회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림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림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둘째 주: 분단의 아픔을 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고, 남과 북에는 각각 별도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조치로 시작되었지만,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결국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장전임정으로 멈추었지만, 한반도는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DMZ, 곧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계되는 군사분계선 중 하나이며, 두려움과 상처, 단절을 상징하는 아픈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직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주신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22).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일은 허물어졌으며, 우리는 하나 됨과 평화, 화해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인들을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여전히 떨어져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화, 그리고 재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주차 기도 제목

1. 한반도와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분열과 미움, 두려움이 닮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 아산가족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DMZ 인근에서 살아가거나 복무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 남과 북 사이에 지속적인 평화와 치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과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보호와 힘, 자유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5.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평화, 소망을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nada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